

[종합]

관광적자 100억弗 넘었다

지난해 말 101억3,000만 달러 ' 사상 최대 '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관광공사 분석한 2007년 관광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수입은 57억5천만달러, 관광지출은 158억8천만달러로 101억3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의 81억8천700만달러보다 적자규모가 18.1%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관광수입은 2006년보다 0.2% 줄어든 반면 관광지출은 무려 18.1% 증가해 국민의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반영했다. 특히 2004년에는 관광수입이 60억5천300만달러, 관광지출이 98억5천600만달

러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지출이 방한 외국인의 지출보다 1.6배가 많았으나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난해에는 2.8배에 달해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는 1천332만 4천977명으로 2006년보다 15.7%가 증가한데 비해 외국인 방문객은 644만8천240명으로 2006년보다 4.8% 늘어난데 그쳐 관광수지 적자를 악화시켰다.

또 1인당 관광비용 지출은 외국인 방문객은 892달러인 반면 내국인은 1백12달러를 지출하는 등 지출규모에서도 내국인의 씀씀이가 훨씬 컸다. /연합뉴스

'軍 가산점' 부활 백지화 될수도

법사위 심사서 위헌 제기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채용시험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군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체계, 지구 심사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2소위원회

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당시와 비교해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합격률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이유는 가산점 비율이 아니라 가산점 제도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라며 여전히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처리 불가론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북 광역경제권 성공하려면

"車·기계산업 글로벌 거점 육성을"

■ '호남권 산업클러스터 방향' 세미나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이 광역경제권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자동차·기계·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6일 광주클러스터추진단 주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역경제권 지역정책과 호남권 산업클러스터 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광역발전 전략의 기존 시·도의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하여 규모의 경제에 기초한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간 공동번영을 이룸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광역경제권이 경쟁력 있는 권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화에 기반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혁신클

러스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호남권의 경우 광주시의 광산업·정보·전자·자동차 부품·디자인문화산업, 전남도의 생물·신소재·조선·물류·문화관광, 전북도의 자동차·기계·생물·대체에너지, 문화 관광 등의 전략산업을 연계 육성하고, 필요에 따라 인접 광역권과 조광역적인 네트워크형 산업육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R&D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중량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1차산업과 2차 및 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도시와 농촌간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호남권은 첨단산업, 물류 및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현황의 새로운 성장기

점으로 가꿔나가야 한다"며 핵심 산업으로 ▲자동차▲바이오(식품)▲신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의 경우 광주와 군산의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광주·전북의 기계, 전남의 신소재를 광역차원에서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전남·북의 바이오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농업과 관광의 융복합화를 통한 세계적 식품·휴양관광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태양 광과 바이오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권역내에 연계 집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적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해 전략 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문화수도 핵심사업 차질 우려

문화개발·문화대학원 설립 예산 확보 못해

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건립이 추진돼야 할 아시아 문화개발원, 문화대학원 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주요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오는 2012년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이 지난해 10월 수립됐지만, 현재까지 아시아 문

화전당 건립을 제외한 문화중심도시 핵심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 착공과 동시에 아시아 문화개발원, 문화대학원이 설립돼야 하지만 올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아시아 문화개발원은 문화 상품개발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기관이고, 문화대학원은 문화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급 교육시설이다.

또 오는 5월 착공될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전당 건립단과 운영단이 구성돼야 하지만 새정부의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이마저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 이영진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단장은 "새 정부가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고향에 와도 실수가 없다

결산공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光 卍日報 광고마케팅국

전화: (직)062-227-9600
FAX: 062-227-9500
E-mail: design@kwangju.co.kr
dd8111@hanmail.net

백명산업 주식회사

1. 양도권 전속의 종류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1 (전화: 062-282-1011)
2. 양도권 전속의 종류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1 (전화: 062-282-1011)
3. 양도권 전속의 종류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1 (전화: 062-282-1011)
4. 양도권 전속의 종류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1 (전화: 062-282-1011)
5. 양도권 전속의 종류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1 (전화: 062-282-1011)

(제20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 과목 | 금액 | 과목 | 금액 |
|------------|------------------|---------------|----------------|
| I. 유동 자산 | 21,002,046,754 | I. 유동 부채 | 11,553,544,536 |
| (1) 현금 | 19,838,789,804 | 1. 미지급금 | 4,356,098,254 |
| 2. 단기금융상품 | 1,026,572,219 | 2. 미지급금 | 1,496,954,925 |
| 3. 단기금융상품 | 7,985,600,000 | 3. 선입금 | 792,000 |
| 4. 매출채권 | 4,293,995,451 | 4. 미지급금 | 71,750,798 |
| 5. 대손충당금 | (46,294,840) | 5. 미지급금 | 414,679,165 |
| 6. 미지급금 | 142,895,631 | 6. 미지급금 | 91,559,545 |
| 7. 선입금 | 18,300,000 | 7. 미지급금 | 8,996,350 |
| 8. 선입금 | 252,215,058 | 8. 선입금 | 96,788,653 |
| 9. 선입금 | 194,596,226 | 9. 유동차입금 | 4,878,800,769 |
| 10. 기타자산 | 621,183,449 | 10. 유동차입금 | 42,238,489 |
| II. 비유동 자산 | 44,545,963,043 | II. 비유동 부채 | 11,047,650,839 |
| (1) 장기금융상품 | 4,500,000 | 1. 장기차입금 | 6,774,408,880 |
| (2) 고정자산 | 1,163,266,860 | 2. 장기차입금 | 760,558,332 |
| 1. 지장 | 1,163,266,860 | 3. 장기차입금 | (728,700,000) |
| II. 비유동 자산 | 44,545,963,043 | 4. 기타차입금 | 478,150,000 |
| (1) 장기금융상품 | 4,500,000 | 5. 기타차입금 | 3,766,949,627 |
| (2) 고정자산 | 1,163,266,860 | III. 자본 | 5,200,000,000 |
| 1. 토지 | 1,653,281,410 | 1. 자본금 | 5,200,000,000 |
| 2. 건물 | 3,596,606,818 | IV. 이익잉여금 | 1,089,260,289 |
| 3. 기계장비 | 62,693,978,805 | 1. 기차차입금 | 1,089,260,289 |
| 4. 차량 | (47,593,347,209) | II. 이익잉여금 | 7,559,797,723 |
| 5. 가동자산 | (103,477,366) | 1. 이익잉여금 | 7,559,797,723 |
| 6. 기타자산 | 1,474,796,402 | III. 이익잉여금 | 29,097,746,430 |
| 7. 기타자산 | 4,848,369,925 | 1. 이익잉여금 | 540,000,000 |
| 8. 기타자산 | (505,438,533) | 2. 이익잉여금 | 26,090,000,000 |
| (3) 무형자산 | 388,960 | 3. 이익잉여금 | 2,467,746,430 |
| (4) 기타자산 | 877,878,208 | 자본총계 | 42,946,804,422 |
| 1. 노 | 377,878,208 | | |
| 자 산 총 계 | 85,547,999,797 | 부 채 의 자 본 총 계 | 85,547,999,797 |

위와 같이 공고함.

2008년 2월 27일

광양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원용진

인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영복

산행안내

2월 28일(목)

- ▲ 광주고교내의 현천 개산 2월 28일(목) 7시 30분
- ▲ 광주고교내의 현천 개산 2월 28일(목) 7시 30분
- ▲ 광주고교내의 현천 개산 2월 28일(목) 7시 30분

3월 1일(일)

- ▲ 광주도요산악회 대우 광곡산 3월 1일(일) 6시 30분
- ▲ 광주도요산악회 대우 광곡산 3월 1일(일) 6시 30분
- ▲ 광주도요산악회 대우 광곡산 3월 1일(일) 6시 30분

3월 2일(일)

- ▲ 광주우라산악회 전진 진도 봉화산 3월 2일(일) 8시
- ▲ 광주우라산악회 전진 진도 봉화산 3월 2일(일) 8시
- ▲ 광주우라산악회 전진 진도 봉화산 3월 2일(일) 8시

3월 4일(화)

- ▲ 광주우라산악회 1월 봉화산 3월 4일(화) 8시
- ▲ 광주우라산악회 1월 봉화산 3월 4일(화) 8시
- ▲ 광주우라산악회 1월 봉화산 3월 4일(화) 8시

3월 5일(수)

- ▲ 광주우라산악회 1월 봉화산 3월 5일(수) 8시
- ▲ 광주우라산악회 1월 봉화산 3월 5일(수) 8시
- ▲ 광주우라산악회 1월 봉화산 3월 5일(수) 8시

및 투자양해각서

때: 2008. 2. 26(화) 11:00

곳: 르네상스 호텔

박광태 광주시장과 수도권·영남 기업 대표 15명이 2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한 자리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수도권·영남 기업 15곳 광주에 1,000억원 투자

어제 서울서 MOU 체결

박광태 광주시장과 수도권 및 영남지역 기업 15개사와 945억원 상당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한 결과에 이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수도권 기업 13개사, 영남지역 2개사 등이다. DVR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서울 금천구의 A사는 100억원을, 휴대 폰 백라이트 유닛과 강화유리 등을 생산하는 코스타 등록기업인 경기도 고양시의 N사는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고분자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관련 벤처기업인 경기도 포천의 S사(100억원)를 비롯 LED 응용제품 생산기업 5개사, 서울 금천구의 T사 등 10사 등 15개사가 투자양해를 밝혔다. 이들 업체 가운데 10개는 광산구의 평동산단에, 5개는 북구 첨단산단에 입주할 예정이며 업종별로는 부품 제조업 5개, 광산업 5개, 금형산업 4개, 바이오산업 1개 등이다.

시는 이번 투자 양해각서 체결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경우 1천15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주력산업인 광산업 분야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양해각서 체결이 조속히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분야계획을 비롯해 금융·공과시설·기술개발·고용 등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이날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주)한국물텍스 정진택 회장 등 12명을 현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서울사무소를 투자유치사무소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날 수도권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환경설명회에서 박광태 시장은 수출 100억 달성과 광·금형산업의 발전 등 역동적인 산업도시 광주의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홍식기자 who@kwangju.co.kr

초대 방송통신 위원장 최시중씨 사실상 내정

부장과 편집국장, 정치담당 논설위원을 거쳐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갤럽 회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정치자금위원을 담당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여성장관 후보자와 함께 방송위원장 인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장관에는 예초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본인이 총선출마를 위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급매

국도점

- ▲ 나주·남평역에서 화순방향 2km
- ▲ 남향투자 최적지
- ▲ 주말농장 및 선산 최적지
- ▲ 22,353㎡ (7,000평)
- ▲ 주인직접 (평당3만)
- ▲ 1000평 2000평 (분할가능)

010-7704-0052